

곡성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곡성군 어린이집연합회 주관...3일간 60여 명 대상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곡성군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이 주최하고 곡성군 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해 개최됐다.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스트레스를 경감해 관내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교육은 18일 곡성군 레

저문화센터에서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 받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 안전 이론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안내됐다. 2차 교육은 19일부터 20일까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심신 안정을 취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및 자연생태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곡성군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업무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보육교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육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자존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육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보육정책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립을 토대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소통 물꼬 텄다”

5월 간부 직원 간 간담회

나주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밀착 대화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나주목사내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10곳 부사장, 간부·임원들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대외협력 관련 부서 대리, 차장급 실무 직원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다. 간담회는 공식 행사 장소, 회의 석상이 아닌 관공지, 식당 등 편안한 장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생협력사업 발굴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간 대화 자리를 통해 일상적인 친분과 공감대를 쌓는다는 취지에서다. 빛가람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 10년차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나주시와는 상시적인 대화 창구나 이와 관련된 협업 사례, 성과가 사실상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시정 중점 분야로 16개 이전공공기관과 국·도립 기관과의 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관내 국·공립·공공기관과 시청 관계부서를 1:1로 매칭하는 부서 책임제를 도입해 협력사업,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16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의 대화 자리를 정례화해 상호 건의, 실무 협력 사항 등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두 번째 간담회는 1차 실무자 간담회 당시 한국전력공사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나주목사내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나주시



간영구 부시장과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평가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0곳 부사장, 본부장 등 간부 임원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주민 활동 수요를 반영해 공공기관 주차·체육·문화·편의 시설 개방을 건의했다. 또 매주 토요일, 둘째·넷째 주 일요일 지역관광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나주시티투어’ 운영 재개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요청했다. 나주시사랑상품권 사용, 구내식당 주1회 휴무제 검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 문화 확산에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실무직원, 간부가 참여한 두 차례 간담회를 계기로 이전 10년차를 앞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행정 간 상시적인 소통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관 간 주요 업무, 사업 공유로 상호 이해도를 높여 중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군민리스타트 직업교육 만족도 높아...하반기에도 개설

캘리그래피양성과정 등 2개 과정...16명 민간자격증 취득

구례군은 종합사회복지관 군민리스타트 직업교육을 통해 16명의 수강생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6주간 진행된 직업교육은 캘리그래피 양성과정, 방과후돌봄지도사 과정 2개 과정으로 구성했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능력을 갖춘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지난 11일 교육을 마치면서 26명의 수강생 중 캘리그래피 자격증 3급 5명과, 방과후돌봄지도사 자격증 1급 4명, 2급 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교육은 신청 당시에도 대기자가 있을 만큼 호응이 높았는데 종강 시 이뤄진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 이상의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 여성, 은퇴자 등에게 직업,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취

업률을 높이겠다”며, “올해 구례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민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으로 명품 학습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어학 및 교육, 취미여가, 건강증진 등 13개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화순군은 17일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관광두레 광주·전남 신규지역으로 전남 화순군 1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화순군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는 4월 27일 접수·완료되어 심사를 통해 6월까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오는 6월 확정된 2023년 신규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전문교육, 견학), 파일럿, 컨설팅, 법률/세무,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창업과 성장



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두레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두레PD 활동 및 홍보를 지원하고, 관광두

레사업으로 화순의 특색을 지닌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화순 관광을 선도하는 주민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